#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매력적인 컬러 다이얼과**

**새로운 울트라 씬 핑크 골드 케이스가 돋보이는 모델**

- *리베르소 초창기 모델부터 이어진 컬러 변주*
- *컬러 다이얼과 교체 가능한 파글리아노 컬렉션 스트랩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 표현*

리베르소는 1931 년 출시 직후 폴로 경기장 너머 전 세계 트렌드세터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컬러 다이얼이 장착된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화이트 또는 실버 다이얼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메탈 케이스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컬러 다이얼은 리베르소의 간결하고 대칭적인 디자인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2023 년, 예거 르쿨트르는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다이얼의 네 가지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를 선보이며 컬러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은 오리지널 1931 리베르소의 블랙 다이얼에 경의를 표하며 폴리싱 메탈 소재와 인상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버건디 래커 다이얼은 영롱하게 빛나는 핑크 골드와 조화를 이루며, 1 세대 리베르소의 실버 다이얼을 연상시키는 실버 다이얼은 메탈의 특유의 세련된 광채가 돋보입니다. 블랙 및 버건디 다이얼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파글리아노 컬렉션 스트랩 2 개와 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그니처 캔버스와 송아지 가죽 혼합 소재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 송아지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실버 다이얼에는 파글리아노 컬렉션의 캔버스와 송아지 가죽 혼합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블랙 악어가죽 스트랩이 제공됩니다. 2023 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 니켈 마감 핸즈와 인덱스가 장착된 실버 오팔 다이얼은 스틸 소재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케이스에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줍니다.

**새로운 핑크 골드 울트라 씬 케이스**

핑크 골드 소재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케이스는 2023 년에 대폭 수정되어 두께가 약 1mm 감소한 7.56mm 에 불과해 극도의 섬세함을 선사합니다.

세련미가 돋보이는 직사각형 케이스는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 모양입니다. 원형의 해시계에서 볼 수 있듯 초창기 기계식 시간 측정 장치는 원형 케이스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시곗바늘이 '둥글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후 시계 메커니즘이 원형 형태로 설계되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1931 년, 최초의 리베르소가 고안되었을 때 회전형 케이스가 그 기능을 다하려면 직선 형태의 케이스가 개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케이스의 측면은 손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폴로 선수들이 착용하기에 이상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이 결정된 후 예거 르쿨트르는 직사각형 콘셉트를 더욱 발전시켜 케이스 형태에 맞춘 리베르소 무브먼트를 제작했습니다.

리베르소의 케이스를 슬라이드 하여 회전하는 메커니즘은 워치메이킹에 있어 가장 복잡하며 제작하기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이기에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모델을 더욱 얇게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케이스를 구성하는 50 개 이상의 부품 중 약 40 개는 회전 메커니즘에만 사용되며 케이스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내 전문 팀에서 전적으로 생산 및 수작업으로 조립됩니다.

**우아하고 심플한 디자인 -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

선레이 다이얼을 제작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첫째, 다이얼 베이스의 아연 도금 처리를 통해 금속광을 만들어내며 아래에 위치한 브라스 소재가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 매우 가는 메탈 브러시를 사용하여 다이얼 중앙에서 정확하게 교차하는 선레이 패턴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선으로 그려냅니다. 이로써 빛이 다양한 각도로 다이얼에 반사될 때 독특한 컬러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래커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얼 표면에 광택제를 바르고 폴리싱 처리하여 미묘한 질감의 선레이 패턴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컬러 다이얼의 래커 처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입니다. 최대 4 겹의 컬러 래커를 더해 원하는 강도와 톤을 만든 다음 최대 20 겹의 반투명 래커를 더해 시각적 깊이를 더하고 최종 컬러를

완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한 겹의 래커 작업이 끝나면 이상적인 열과 습도 조건에서 건조되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래커에 광택제를 바른 다음 수작업으로 폴리싱 처리를 거치면 거울처럼 반짝이는 피니싱을 얻게 되며 컬러에 강렬함과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2023 년에 선보이는 새로운 다이얼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디자인의 시그니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은 숫자가 아닌 아플리케 인덱스로, 12 시는 더블 인덱스로 표시됩니다. 도피네 핸즈와 동일하게 각면 처리한 인덱스는 다이얼 표면에 시각적 깊이를 더하며, 다이얼 하단에 자리한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의 원형 트랙은 다이얼 및 케이스의 기하학적 라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케이스를 회전하면 드러나는 크래들의 강렬한 선레이 패턴은 다이얼의 선레이 브러싱과 조화를 이룹니다.

리베르소의 전통을 계승하는 회전 케이스의 견고한 메탈 소재의 뒷면은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맞춤 제작한 부분을 숨기거나 케이스를 뒤집어 뒷면이 시계 정면에 오도록 연출할 수 있습니다.

**폴로 전통을 이어가는 리베르소**

예거 르쿨트르는 최고급 수제 폴로 부츠 제작사인 까사 파글리아노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리베르소의 기원인 폴로 세계와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핑크 골드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모델은 새로운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컬러 스트랩이 제공되며, 캔버스와 송아지 가죽 혼합 소재 스트랩과 전체 송아지 가죽 스트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리베르소 디자인의 모던함을 강조하는 스트랩에는 핀 버클이 장착되어 있어 스트랩을 빠르고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칼리버 822 - 제작 과정의 통합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 철학의 전형**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는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822 로 구동됩니다. 108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무브먼트는 뛰어난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부품은 견고한 메탈 케이스백 아래에 숨겨져 있지만 예거 르쿨트르의 다른 칼리버와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마감 및 장식되었습니다.

일반 정보

리베르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칼리버 822 의 모든 부품은 매뉴팩처에서 생산 및 조립됩니다. 무브먼트의 형태도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는 예거 르쿨트르의 초기 철학에 따라 무브먼트는 리베르소 케이스의 직사각형 형태에 맞춘 토노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핑크 골드)**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크기:** 45.6 x 27.4mm, 두께: 7.56mm 7.56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 m

**다이얼:** 블랙 선레이 / 버건디 래커 / 실버 선레이

**케이스백:** 솔리드 백

**스트랩:** 파글리아노 컬렉션의 교체 가능한 송아지 가죽과 캔버스 혼합 소재 스트랩 및 전체 송아지 가죽 스트랩(핑크 골드/블랙, 핑크 골드/버건디), 파글리아노 컬렉션의 교체 가능한 송아지 가죽과 캔버스 혼합 소재 스트랩 및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핑크 골드/실버)

**제품 번호:** 핑크 골드/블랙: Q713257J; 핑크 골드/버건디: Q713256J; 핑크 골드/실버: Q7132521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스틸)**

**케이스:** 스틸

**크기:** 45.6 x 27.4mm, 두께: 7.56mm 8.5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 m

일반 정보

**다이얼:** 실버 오팔린

**케이스백:** 솔리드 백

**스트랩:** 파글리아노 컬렉션의 송아지 가죽과 캔버스 혼합 소재

**제품 번호:** 스틸 Q713842J

---

**황금 비율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율은 그리스 글자 $\phi$ (파이)로 표현되거나 1.618 로 정의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jaeger-lecoultre.com**